



소리주보

새로운 서약, 새로운 희망

치유의 해, 성체를 공경하며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갑시다!

대림 제2주일, 인권 주일, 사회 교리 주간 |

2019. 12. 8.(가해) 제2190호



사진 / 양병주 분도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마태 3,11)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성모당에서 순례자들이 초를 봉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정성껏 초를 봉헌하는데, 어떤 이들의 초 봉헌 모습은 다소 황당했습니다. 자신의 초를 중앙에 봉헌하기 위해 다른 초들을 구석으로 밀어붙이는 모습, 자신의 초를 봉헌할 공간을 마련하려고 봉헌된 다른 촛불을 입김으로 불어 끄는 모습, 자신의 초가 좀 더 잘 타게 만들려고 초를 조금 태운 후 촛농을 바닥에 붓는 모습, 촛불을 켜기 위해 사용한 라이터나 초 심지를 사용 후에 아무렇게나 놓아두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과연 하느님과 성모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했습니다.

신나무골 성지에서도 순례자들이 초를 봉헌합니다. 관리자가 없어 제가 아침마다 타다가 꺼진 초를 다시 불 붙여주고, 봉헌대를 정리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가장 위쪽에 봉헌한 초가, 그다음으로 가장 중앙에 봉헌한 초가 잘 꺼진다는 점입니다. 가장 잘 타는 곳은 아래쪽이고, 그다음으로 가장자리였습니다. 순례자들은 기필코 높은 곳이나 중앙에 초를 봉헌하려고 하는데, 촛불이 꺼지지 않고 타 들어가는 곳은 낮은 곳과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현상이었습니다.

제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주님이 힘없는 이들과 가련한 이들을 돌보아 준다고 하셨습니다.(이사 11,4)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자신을 낮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종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 하느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기꺼이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로마 15, 5-8) 마태오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면서 모범을 보였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마련”하는 일은 이 시대에 정의와 평화가 꽃 피게 하는 일이며(화답송) 자신을 낮춤으로써 가능합니다.

초를 봉헌할 때, 자신의 초만 잘 태우려 할 때 오히려 촛불은 꺼지고, 다른 이의 초도 잘 타게 도와줄 때 촛불은 잘 타습니다. 대림 시기에 주님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을 더욱 낮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궤**

서준홍 마티아 신부 | 신나무골 담당

“기도해 드릴까요?”

예전에 어느 지방에서 나이가 좀 드신 기사님의 택시를 탄 적이 있다. 이 기사님이 담배 연기를 연거푸 내뿜으면서 긴 한숨을 내쉬는데 문득 호기심에 “담배를 많이 피시는가 보죠?”하고 여쭙었다. 그랬더니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피지는 않는데 며칠 전에 가장 친한 친구가 갑자기 죽어서 웬지 자꾸만 불안해서 그래요.” 나는 조심스럽게 내가 천주교 신자임을 말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인간이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어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드렸다. 잠자코 잘 들으시는 것을 보고 우리 천주교 신자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시켜 주실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혹시 기도를 해드려도 되겠느냐고 다시 여쭙었다. 그러자 기사님께서 흔쾌히 기도를 받으시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버지 하느님, 기사님이 친구의 죽음 때문에 죽음에 대한 불안이 많으니 당신의 평화를 내려주소시오. 저의 이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하고 간단히 기도드렸다. “기분이 어떠세요?”라고 물으니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졌네요. 기도가 효험이 있군요.” 하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때를 놓치지 않고 하느님을 믿어 보시라고 권했다. 그리고 집 주변에 반드시 성당이 있을 것이니, 성당에 꼭 한 번 가보시라는 당부와 함께 택시에서 내렸다.

또 한 번은 아는 분의 어머니가 병원에 계셔서 그분을 위해 기도를 드리러 병원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그 어머니께 기도를 드리는데 마침 맞은편에 다른 환자의 보호자로 보이는 자매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다. 기도가 끝나고 나는 그분께 “혹시 신자세요?”하고 물으니 자기는 신앙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하고 물으니 조금도 지체 없이 “예”라고 하는 것

이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이 바라는 것을 듣고 아버지 하느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자매님을 위해 기도를 드렸다. 기도 후 밝게 웃으시면서 고맙다고 말하는 그 자매님께도 성당에 나가셔서 하느님을 믿어보시라고 말씀드렸다.

ICPE 선교사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강의와 피정 지도도 하고 거리 선교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을 전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다름 아닌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만큼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하느님을 체험케 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다. 기도가 효과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례 때 사제직을 받았기 때문이다. 신부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필요를 하느님께 전구하는 사제로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하는 말과 기도로서 하느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이다. 사제직은 하느님을 위해 희생과 기도를 바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선교를 할 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겸손하고 충실하게 섬기는 왕직과 사람들에게 진리를 설명하고 선포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예언직**, 그리고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위해서 하느님께 그들의 필요를 전구해 줌으로써 세상에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오직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음을 드러내는 **사제직**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하느님,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이다. 하느님은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세례 때 이미 마련해 주셨다. 그러니 이제 누구도 나는 선교할 줄 모른다고 해서 안 되지 않을까? **▶▶▶**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모님께서 받으신 특별한 은총은 이 지상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모님의 은총은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성모님은 이제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이들의 어머니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상 생활 동안 은총의 그릇으로 선별되어 가득히 받으신 은총을 영원 안에서 모든 이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성인들의 통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덕이 있는 이들이 마련한 공덕이 그것이 부족하거나 없는 이들에게 나누어진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천상 교회는 지상 교회를 도울 수 있고, 지상 교회는 연옥 교회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이를 위해서 기도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을 나눌 수 있는 성인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신 분, 가장 사랑이 가득하신 분, 바로 상경지례를 받으시는 분이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자녀들이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이들에게는 절대적인 신비입니다. 산 사람 중에는 죽음을 체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유일하신 분, 하느님의 외아드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죽음이라는 것이 부활에 가닿게 하는 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죽음이 불안의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만큼 외아드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도움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의 도움은 바로 거룩하신 어머니, 즉 성모님의 기도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믿음의 모범을 지니신 분이기에 우리의 불안한 믿음을 굳건히 세워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약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나약한 줄을 알면서도 의탁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성모님의 기도에 우리를 내어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그 모든 것은 어머니께서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문**

마진우 요셉 신부 | 4대리구 복음화담당

애덕송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도

별이 두려워서도 아니요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다 당하시며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써

저를 온전히 받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천국의 명예도

상을 원해서도 아니요

저를 먼저 사랑하시고

저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저를 온전히 받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st. Francis Xavier, 1506~1552) : 신부, 선교사, 가톨릭 선교의 수호성인

지혜의 숲

스승은 은둔보다 행동을 더 마음에 들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항상 '깨친' 행동을 주장했습니다.

제자들은 '깨침'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올바른 지향’이란 뜻입니까?”

봉 사

“천만에.” 스승은 말했습니다.
“원숭이가 물고기를 물구덩이 무덤에서 구해 주겠다고
강에서 건져 올릴 때,
그가 얼마나 올바른 지향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제38회 인권 주일, 제9회 사회 교리 주간(2019.12.8~14) 담화 진정한 혁명 - 보듬어 안기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배기현 주교님의 제38회 인권 주일, 제9회 사회 교리 주간 담화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전례

제 1 독 서	이사 11,1-10	제 2 독 서	로마 15,4-9	복 음	마태 3,1-12
화 답 송	◎ 주님, 이 시대에 정의와 평화가 꽃피게 하소서.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알렐루야.				
영 성 체 송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 12.1(일) | 인동성당 40주년 미사 및 견진성사
- 12.2(월) | 군중교구 파견 사제 미사
- 12.4(수) | 가톨릭문인회 출판 기념회
- 12.7(토) | 신나무골 성지 후원회원의 날 미사

- 12.1(일) | 성안드레아성당 견진성사
- 12.2(월) | 군중교구 파견 사제 미사

2005년, 영화 <위대한 침묵> 에서 소개된 카르투시오 수도회가 다시 한 번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이번엔 경북 상주에 자리한 모동 수도원이다. 고독과 침묵 속에서 전 생애를 바쳐 모든 하느님의 피조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카르투시안들의 이야기가 3부작 다큐멘터리에 담겼다.

서상끝의 집

카르투시오 봉쇄수도원

KBS 1TV
12월 19일 (목), 25일 (수), 26일 (목) 밤 10시

KBS 1TV를 통해 방영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미리미리 박성규 엘리시오

오늘이 ...

12월 8 대림제2주일

대림 제2주일 ...

빨리빨리 서둘러야겠다

아기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하여 ...

고해소

마음을 깨끗이 ...

미사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2월 9일(월) 10:30 범어성당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2월 9일(월) 11:00 계산성당
경주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12월 9일(월) 11:00 황성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12월 10일(화) 11:30 계산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2월 9일(월) 11:00 신명성당	김천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12월 11일(수) 10:00 평화성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2월 9일(월) 11:00 죽도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12월 14일(토) 10:00 월성성당

성소 | 피정

예수고난봉쇄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수시로 가능
장소: 청주 예수고난봉쇄수녀회
문의: (043)295-5940
cpnunskorea@catholic.or.kr

큰고개성당 대림 음악 피정

일시: 12.21(토) 19:30
초청: 베리파스남성중창단
문의: 959-1223

청년 성탄 전례 피정

일시: 12.24(화)~25(수)
장소: 톳짱포교베네딕도 대구수녀원
대상: 35세 이하 청년
비용: 2만원
문의: (010)9890-3431

서울 삼성산피정의집 무료 치유대피정

일시: 12.13(금) 18:00~15(일) 15:00
출발: 포항 홈플러스 11:00
대구시민회관 12:00
문의: (010)9774-3395

젊은이들을 위한 꽃동네 성령피정

일시: 1.3(금) 13:00~5(일) 16:00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연수원 중강당
대상: 중고·대학·일반(35세 미만)

비용: 3만원 / 문의: (010)5490-5345
myungkkot@hanmail.net

제주면형의집 피정

수도회 수사와 제주성지·평화·역사
순례, 미사,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일시: 1.13~15 / 1.17~19(한라산)
12.29~1.1(일몰, 일출, 한라산 눈꽃 산행)
신청: (02)773-1463 / (064)756-6009

교육 | 모집 | 기타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 겨울학기 모집
학점은행(사회복지·보육·평생교육실습)
취미·교양 / 자격증 / 음악원(1:1레슨)
선착순 마감
문의: 660-5554~7
http://conedu.cu.ac.kr

가르멜새족회 자원자 모집

마감: 1월 모임 전 / 대상: 50세 이하
첫째주 일요일탐: (010)3308-1004
첫째주 월요일탐: (010)4525-2467
넷째주 일요일탐: (010)4533-0678
넷째주 월요일탐: (010)3532-7337

제주도 성지순례 3일

일시: 12.17~19 / 1.3~5 / 3.20~22
장소: 제주성지 7곳(성지해설)
주최: 서울대교구 가톨릭사회경제연합회
문의: (064)805-9689

34회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영어캠프

필리핀: 12.31(화) / 1.14(화)
캐나다: 1.3(금)
대상: 청소년, 대학생, 가족 연수
문의: 국제교류팀, 593-1273

미국가톨릭사립학교 입학 학생 모집

기간: 장·단기 / 대상: 초5~고1
주최: 그리스도의레지오수도회 운영
미국 학교법인 / 문의: (02)2258-8983
http://www.oakinternational.co.kr

제55차 아일랜드 영어 연수생 모집

현지 학생들과 함께 수업합니다.
초·중·고: 1.4(토)~2.8(토)
후원: 원죄없으신마리아교육선교수녀회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학생 모집

일시: 3월~12월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혜택: 교육비 전액 무료, 수당지급,
취업(최근 5년 평균 취업률 93.3%)
대상: 15~30세 남자 / (02)828-3600

전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전인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단 암 검진
및 일반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약전화: 670-5959

일월, 한솔, 한일매트
게르마늄 온수매트
소금좌욕기 전자제품
(주)매일프라자
김홍은(요셉) T.053)604-3300
대구 북구 유동단지 45 전차관 1층 239호

한투어
(주)한투어
성지순례전문
이스라엘, 성모발현지, 프랑스 순례
터키/그리스 성지순례 모객중
☎ 053-427-7090
안상덕 요한, 김 마리아막달레나
http://www.hantourcatholic.com

백합식품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옛날!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100% 국산콩으로 만드는 우리의 장맛
수녀원 매주, 된장, 간장, 청국장, 대추즙
대구 053)257-1771
공장(자인) 053)857-2037
www.spcfood.co.kr

범어데이케어센터
어르신 주야간보호
노인성 질환(치매, 중풍 등)
프리미엄 웰빙케어 / 4층 규모 신축 건물
원장 차명진(에스텔) 사회복지학 박사
법인 뒷편, 범어공원(아시골) 앞
예약상담 010-2020-8304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무실이사, 보관이사
유림익스프레스
허만철(바오로)
하중순(요안나)
H.P 010-7659-8777
053)783-2456, 653-2456

난창·이명은
밝은 귀청각재활센터 & 보청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
상담 및 청력검사 문의 053)257-8588

U&I
유앤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역 5번 출구 (사월 방향 500m)
제일병원 옆
김경일 (아테스)

레이저 백내장 노안수술, 근시교정 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호성(아오스당)
의학박사 전문의 조영수(다미아노)
전문외과 이수윤(소피아), 홍정홍(대전안드레이)
☎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장병보(베드로) 신부
1983년 12월 8일
- 안군목(마가리오) 신부
1948년 12월 8일
- 정춘석(아우구스티노) 신부
2003년 12월 13일
- 최덕홍(요한) 주교
1954년 12월 14일

행사 | 모임

12월 예비신학교 방학미사

일시: 12.15(일) 14:00

1~5대리구: 남산동 대신학원 성당
*교구 모든 예비신학생을 위한 미사
(학부모님도 오실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직자 동계 피정

일시: 12.14(토)~15(일)

장소: 꾸르실료교육관 / 참가비: 2만원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68
<http://www.jesusclub.or.kr>

사회 교리 주간 행사

일시: 12.11(수)~13(금) 19:00~21:00

장소: 교구청 내 카페카리타스 2층
주제: 진정한 혁명_보듬어 안기
(영화를 통한 공감)

문의: 대구정의평화위원회, 250-3163

한T이고 가는 길(성지순례길)

1박 2일: 12.20~21 / 1.10~11

2박 3일: 1.30~2.1

장소: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비용: 6만 5천원, 13만원

문의: (054)971-0722 / (010)6791-0071

배고픈 아이들을 위한 제9회 8090 밥콘서트

일시: 12.14(토) 16:00, 19:00(2회 공연)

장소: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 / 2만원

후원: 대구CPBC, 매일신문, 가톨릭신문

문의: (010)2521-6870 / (010)9577-7819

교육 | 모임

12월 가나강좌

일시: 12.15(일) 10:00~17:30(시간엄수)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마리아관

참가비: 1인 2만원(당일 신청) 무료주차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선교교육의 날(매달 2, 3, 4주 월)

미사-교육: 12.9, 23(월) 10:30~14:00

선교체험나누기: 12.16(월) 10:30~16:00

장소: 1대리구청 강당(계산성당 내)

지도: 이창수(야고보) 신부

문의: 선교센터, 781-6100

천주교교리 중국어 강좌

일시: 12.28(토) 15:30~16:30

장소: 유스티노신학원 강의동 103호

강사: 최동석(안드레아) 신부

문의: 한중친선협회, (010)9401-5679

중국어 초보자도 가능합니다.

부부 둘만의 힐링여행 대구 ME 주말

377차 ME주말: 1.10(금) 19:00~12(일)

378차 ME주말: 2.21(금) 19:00~23(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고령성가의집(무료양로원) 어르신 모집

위치: 경북 고령 쌍림면

내용: 매일미사와 공동기도, 1인 1실 사용

대상: 65세 이상 일상생활 가능한 어르신
(실비 1명 / 기초수급자 2명)

문의: (054)954-1824 / (010)2362-7044

채용 | 안내

대구가톨릭대학교 기숙사 임시직 채용

인원: 남성 0명 / 마감: 12.19(목) 17:00

접수: dasom@cu.ac.kr

문의: 기숙사, 859-4063~4

<https://dormitory.cu.ac.k>

대구SOS어린이마을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마을 어머니 및 생활지도원 채용

자격: 미혼 여성

문의: 이종건 신부, (010)4002-5009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이수준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2019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모집

잔여일자: 12.29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9

대구연세안과
백내장 / 노안 / 라식 / 녹내장 / 황반변성
대표원장 / 의학박사 (연 연세대 외과교수) **박중원** (소시모)
안과전문의 **장주현** (비비안나) · 이무일
효성병원 옆 대동M타워 4,5,6층
☎ 053)626-8881~5

참사랑실버요양원
참사랑인지마을
주님 안에서 어르신을 내 부모처럼 모십니다.
• 인지마을(치매전문) 오픈 | 대표이사 전제일(요양)
• 홀스피스실 운영 | 원장 최용병(베네딕도)
• 장기요양인정등급 1~5(시설등급) 받은 어르신을 모십니다.
대구 서구 가리봉리21길 3 | 상담전화 053)563-0657

월명성모의집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성모님 사랑안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보금자리~
60세 이상 독립 주거생활이 가능한신부
☎ 054)434-2898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서준영(요한) 신부
T. (053)630-3000~1
진료분야 : 조현병, 우울증, 알코올 중독 및
기타 정신질환

SM 수맥홍집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중
☎ 1588-5335

THE 신라
웨딩, 상설·출장뷔페
행사대관, 단체모임, 단체도시락
☎ 문의 1522-2633
대표 이송준(베드로) 박사 010-4535-9057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테파노) 마티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역임
신경정신과 전문의/의학박사 대한수면의학회 회장/이사장 역임
대한행동치료학회 회장 역임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공진라벤더 맞은편)
☎ 053)942-8822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 010-3530-7700
010-3817-0111
양호진 요셉, 장효선 데보라